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5권 2호 : pp. 53~87 https://doi.org/10.48206/kceba.2021.5.2.53
2021년 05월

#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관한 경로분석: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윤미(동아대학교 의료상담심리학과)**, 김형빈(동아대학교 교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2-1.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
2-2.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 결정요인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3. 측정도구
Ⅳ. 분석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4-2. 집단간 재취업의지 차이분석
4-3.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4-4. 연구가설의 검증
Ⅴ. 논의
5-1. 연구결과의 요약
5-2. 시사점 및 제언
5-3.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 < 요 약 >

우리사회의 중장년층은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임금부담, 연령제한 등으로 중장년층이 질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영향요인을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전국 40~64세의 중장년층 200명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총 8개의 경로 중 2개의 경로를 제외한 6개의 경로는 통계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계수가 가장 큰 것은 노화불안→경제스트레스(0.539**), 이어서 사회참여→긍정심리(0.323**), 경제스트레스→재취업의지(0.227**), 긍정심리→재취업의지(0.220*), 노화불안→긍정심리(-0.197**), 사회규범→긍정심리(0.1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은 긍정심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긍정심리는 노화불안과 재취업의지 간의 완충역할을 하였으며, 긍정심리와 경제스트레스는 재

*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대학원 의료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수료 yun7918@hanmail.net
*** 동아대학교 대학원 의료상담심리학과 교수 hbkim@dac.kr
• 논문투고일 :2021-04-08. • 수정일 :2021-05-10. • 게재확정일 : 2021-5-31.

취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화불안과 경제스트레스는 부정성을 내재하는 변수로서 두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부정성이 더 강화되어 재취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과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은 심리적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나 고용주, 일자리기관 등에서는 중장년층의 심리적 이해를 돕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언한다.

키워드: 중장년층, 재취업의지, 사회참여, 사회규범, 긍정심리, 노화불안, 경제스트레스

#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2026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인구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사회의 평균 퇴직연령은 OECD회원국들의 평균 56세에 비해 10년이나 빠르고, 노인빈곤률도 43.3%로 OECD 회원국들 가장 높은 1위국으로 나타났다(OECD, 2017). 더구나 우리사회는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며,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은퇴나이는 70대 초반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중장년층은 소득확보를 위한 경제활동차원에서 재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업문제는 저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은 연장자라는 이유로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절실해지는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비해 재취업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재취업일자리는 저숙련직에 종사하거나 연령이 많을수록 단순노무직,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며 근로빈곤에 시달리고 있다(이재성・안준기, 2016). 이러한 중장년층의 생활고 등은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탈로 이어져, 결국 가족해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수급까지 1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노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복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구직자, 퇴직자 중심의 재취업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고용안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장년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의지를 높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은 시급한 사회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재취업일자리는 고용의 질이 낮고, 저임금의 단순 일용직, 실업과 재취업의 반복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년층은 산업구조의 변화, 연령제한,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임금 등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재취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노동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갑작스런 퇴직 등으로 겪는 중장년층의 상실경험은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스트레스를 몰고 오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신체적 노화와 겹쳐 심각한 경우 우울, 정서장애, 생활고로 인한 가족해체, 동반자살 등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재취업은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고령화 초기에는 노후준비 차원에서의 경제적 준비, 노후준비도, 은퇴준비 등의 요인을 주로 다루었다(김양이・이채우, 2008; 이승원 외, 2008; 박경하, 2011; 박창제, 2013).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인구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재취업이나 창직의 필요에 따라 인적자본, 사회자본, 긍정심리자본 등 중장년층의 인적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변인들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배정민, 2014; 임한규・이우진, 2018; 신연자, 2018; 강경란・박철우, 2017; 이한석, 201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거나 개별변수의 확인에 한정된 단편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장년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심리기제를 다룬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은 생애주기관점에서 인생의 성공과 하강을 경험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고 가족원의 역할로 재정립되는 시기로서 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복잡한 내면에 직면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대한 이해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의 중장년층의 재취업환경은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재취업의지에 작용하였을 경우 어떠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기의 재취업의지에 영향요인을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중장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노화불안은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Lynch, 2000; 김욱, 2011)를 토대로 재취업의지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중장년층의 동거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성인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있고(통계청, 2020),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에 대한 이중부양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주된 사유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조사결과(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9) 등을 종합해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경제스트레스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획득된 자질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심리기제이며, 다른 변수와 결합되었을 때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이유에서 긍정심리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진로를 계획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대학생, 중장년층, 은퇴층까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되고 있다(정기수・하정희, 2018; 신연자, 2018; 최영준・박금주, 2019; 이한석・이영균, 2019).
한편,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취업관련 선행연구에서 사회자본이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엄미아, 2012; 이승배, 2013: 강경란・박철우, 2017)에서 사회자본을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중장년층은 다른 계층과 달리 오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로 사회자본을 높게 보유하고 있는 계층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취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으나, 각각의 요소가 가지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종향(2011)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위해 접촉한 네트워크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을터(2016)는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취업을 하는 것이 인적자원을 획득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며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사회참여를 하는 것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퇴기의 중장년층은 사회참여로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역할상실에 따른 좌절감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최해경, 2016).

이러한 사회규범은 사회 내 질서를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간 공유된 가치나 규칙, 준법수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특히 신뢰로 형성된 사회규범은 사회를 통합하고, 그 사회의 가치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신뢰와 안전망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될 수 있다. 사회규범은 재취업의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엄미아, 2012; 김태호, 2015; 이한석, 2019).

더구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일수록 재취업관련 정보획득의 기회가 적어 괜찮은 일자리로 연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취약구조는 반복적인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취업관련 법률, 제도, 각종 프로그램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하여 사회적 불평등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규범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재취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 영향요인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참여와 사회규범, 심리적 요인으로는 노화불안, 경제스트레스, 긍정심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재취업 과정이나 활동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맥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취업 관련 연구에서 비교적 잘 다루지 않는 중장년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들과 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정책수립시 중장년층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이해와 다양한 요구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나 고용주, 일자리정보센타 같은 곳에서 중장년층의 심리적 이해와 지원, 사회적 요인을 강화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2.1.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

중장년층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단계를 일컬으며 대략 40세~60세에 이르는 나이의 사람을 말한다. 특히,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자녀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길어진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장년층은 생물학적 능력은 쇠퇴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커지는 시기로 중장년층의 기간이 상당한 차이가 날 정도로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연령범위를 살펴보면, 김양이・이채우(2008)는 40세~60세, 박한준・김보기(2015)는 40세~64세, 김학주・우경숙(2004)은 45세~64세, 이승

원 외(2008)은 50세~60세, 김서호・변상해(2015)는 50세~64세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에서 중장년층의 연령을 통일하지는 않았으나 정책의 관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률」에서는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하며, 고령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중장년층 행정통계 자료에서는 중장년층을 만 40세~64세로 정의하고 있다.

재취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재취업은 노동시장을 빠져 나갔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연구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류기상(2009)은 재취업을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 후 일에 대한 욕구와 경제적 이유로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송희영(2016)은 재취업의 개념을 특별한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대한 정의를 취업기회를 찾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라고 설명하였다(이한석・이영균, 2019).

이러한 중장년층 재취업은 개인적으로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생산인력을 확보하고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층으로 하락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한석・이영균, 2019). 퇴직한 중장년층은 오랜 경험에서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박경하, 2011). 또한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유지하고 길어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반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이병호, 2013; 양혜진, 2016).

한편, 중장년층은 생애주기관점에서 인생의 성공과 하강을 경험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고 가족원의 역할로 재정립되는 시기로서 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복잡한 내면에 직면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대한 이해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겪으며 입시 및 진로문제 등으로 자녀 세대와 갈등이 커지고 퇴직으로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심리적・정서적 갈등을 경험하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왕석순・서병순, 1995).

무엇보다 중장년층은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세대로서 줄어드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비해 가족부양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의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염인숙, 2016). Levinson(1986)은 이런 중장년층의 발달과업 자체를 위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오늘날의 중장년층

은 교육과 전문지식, 경험 등의 측면에서 그 어느 시기의 중장년층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지에 따라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며, 건강하게 접근해 나간다면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은 발달과정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표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수립하는 시기이며, 이 과정에서 삶의 목표를 실패한 중장년층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은 일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며 참다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정진곤, 2001). 즉, 일을 통해 자아실현, 타인과의 관계유지,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자신의 의미와 존재를 발견하여 성장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재취업이나 취업활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이며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4개 회사에 지원하고 4개사에 면접을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중장년 구직자들은 67세까지 경제활동을 원했으며, 재취업 시 희망임금은 평균 월 244만원으로 퇴직 시 평균 임금 월 315만원의 7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렵게 재취업을 한 직장에서도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45.4%였다(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20).

최근 고조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고정관념, 고령인력에 대한 관심 부족, 청년실업의 문제, 경기침체 등으로 중장년층의 인력활용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김서호・변상해, 2016). 특히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에 대한 제한요건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차별, 새로운 기술습득에 따른 제약을 더 많이 느끼며 가족부양의 재정적 부양의무 등으로 직장에 대한 선택의 폭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김미희 외, 2007).

이성진(2016)의 퇴직 후 재취업 희망조사에 의하면, 중장년층의 68.6%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중장년층은 재취업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즉 준비과정에서 재취업의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을 만 40세~64세까지로 정의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중장년층은 50대 전후를 기점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지만, 퇴직 이후에도 소득확보 등을 위해 재취업을 하였거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고용환경이나 중장년층의 재취업의 어려운 현실들을 고려해 볼 때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은 40대 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2.2.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 결정요인

### 2.2.1. 사회참여와 사회규범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자본은 1990년대 이후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연계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리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지속적 네트워크 또는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에, 즉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체적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어떤 단일한 실체가 아닌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고 보며, 사회의 구조적 안에서 사회적 규범, 개인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를 확보하여 사회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반면, Putnam(2000)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와 이로 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및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구성원간의 상호 이익실현을 위해 협력과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로서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 등의 사회자본적 속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자본은 행위자간의 관계를 통해 상호이익을 공유하며 관찰이 용이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도덕적 자원으로서 사용할수록 축적되는 속성이 있다. 보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구성원들 간 계속되는 관계의 확인과 상호인정을 필요로 하며, 동시성이 전제하지 않는 호혜성에 기초로 하고 있다(김정훈 외, 2017).

한편 사회자본은 그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학제간 연구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지만, 학문분야별로 사회자본의 관한 연구의 관점은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거시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가나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적용되는 변수로 정치체계, 사회조직, 법과 제도 등을 다루는 한편, 미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사회자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재된 정보나 자원의 행위의 결과로서 형성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참여 등을 구성요소로 다룬다(이영균・최승인, 2016).

한편, 사회자본을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으로도 구분하기도 한다. 구조적 차원으로

는 제도, 규칙, 선례, 조직 등의 뒷받침되는 사회네트워크, 즉 개인이나 집단을 연계하는 관계구조에 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인지적 관점은 신뢰, 규정, 가치, 태도, 믿음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유, 그리고 이런 공통된 인지에 기초하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적 행위와 관련된다. 이는 보다 주관적이며 내재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구성은 어떤 맥락에서 접근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김정훈 외, 2017).

재취업과 관련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논의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엄미아(2012)는 공식,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강경란과 박철우(2017)는 신뢰, 네트워크로 구성하였고, 이한석(2019)은 사회규범,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렇듯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하위구성 요소 중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참여가 형성되고 있는 점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규범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을 사회적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사회참여는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비공식적 수준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치,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적행위가 발생하는 곳에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특히,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사회참여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역할 상실에 따른 좌절감을 줄일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권중돈, 2016).

또한 사회참여는 개인에게 활력을 주고 강한 연대의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통된 사회문제나 관심사를 공유해나가며 세대통합과 소외계층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참여로 형성된 사회관계망은 사람과의 교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정서적 지지를 한다(김수린 외 2, 2018; 장유미, 2011). 이을터(2016)는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개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보다 사회적 지위획득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질수록 더 좋은 직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망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대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중장년층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안정과 높은 학력 및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달리 건강이나 안전, 안락한 삶 등의 기본적인 욕구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개발을 하고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욱모, 2011).

다음으로 사회규범을 살펴보면, 사회규범은 사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간 공유된 가치나 규칙, 준법수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사회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 한다(Coleman, 1988). 신뢰가 형성된 사회규범은 특정행위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장

유미, 2011).

특히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동은 연령차별, 산업변화 등으로 제약조건이 많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위험부담으로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아직까지 중장년층의 재취업 정책이나 제도 등은 미흡한 수준이며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수준도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규범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그 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제도나 법률,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청렴이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재취업의지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규범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직업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진창남・신경수, 2017)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나 사회규범은 재취업이나 구직관련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정기수・하정희, 2018; 신연자, 2018; 최영준・박금주, 2019; 이한석, 2019). 특히 퇴직을 전후하여 중장년층이 대부분은 생계유지를 위한 재취업 활동으로 이어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수는 재취업 실패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심리적 안녕감의 제고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2.2. 노화불안

Levinson(1997)은 중장년기의 발달과업 자체는 위기에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오늘날의 중장년층은 교육과 전문지식, 경험 등의 측면에서 그 어느 시기의 중장년층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하는 재취업이나 고용불안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중장년기의 대표적인 심리기제인 노화불안을 살펴보고 재취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노화현상은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노화불안이 중장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은퇴를 앞둔 시점의 중장년층에서 노화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Lynch, 2000)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장년기의 노화불안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심리요인이다. 노화불안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복합된 개념으로 노화과정과 관련하여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늙었다는 상태에 대

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노화불안은 현재보다는 미래 중심적이며 예측되는 염려에 대한 잠재적 불안이라 할 수 있다. Lasher & Faulkender(1993)는 노화불안을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인 힘의 상실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그는 노화불안의 유형으로 상실에 대한 불안,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염려,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변화를 모두 의미하고 있으나 젊음과 관련된 특성에 가치를 두는 현대사회에서는 부정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고(김욱, 2011), 특히 은퇴를 앞둔 시점의 중장년층에서 노화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Lynch, 2001). 또한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은 낮아지고 우울과 정신장애의 위험성이 증가되며 노후준비의 어려움을 증폭시킨다는 연구(김정선・강숙, 2012, 남석인 외 2015, 강해자, 2012, 김욱・김재희, 2007)에서 알 수 있듯이 노화불안은 개인의 심리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 조사결과에 의하면(벼룩시장, 20188.11), 구직활동시 가장 큰 장애요인을 '나이에 대한 편견(43.1%)'을 1순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은 노화불안을 가중시켜 삶의 저하는 물론이고 주관적인 안녕감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이수림・조성호, 2007). 이런 차원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은 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2.3. 경제스트레스

경제스트레스는 한정된 자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인간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자녀출산기와 양육기에는 주택과 양육문제, 자녀 교육기에는 교육비 문제, 자녀 성년 및 결혼기는 결혼자금 문제, 노년기는 노후생활비 문제 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생활주기에 따라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인간은 경제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경제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계 내・외의 사건과 자극에 의해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면서 경제적 불안이 발생하게 될 때,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은퇴, 배우자 사별 등의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또는 물가 및 이자율의 변동, 실업과 같은 경제적 위험이 노출 될 때 경제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성, 2007).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과 함께 2020년 4월말 실업률(4.4%)이 IMF 이후

인 2000년의 4.4%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제적 위기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불안요소가 가중되면서 실업률 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감소와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및 소비의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상당수의 가구들은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서찬란, 2018).

특히, 우리나라의 빈곤률은 17.4%로 OECD 35개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2017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중장년층의 구직사유가 '생계유지 등 경제적 사정(72.5%)'이며, 구직상황에서의 스트레스원 1순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42.3%)'이라는 응답 결과(벼룩시장, 2018.8.1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장년층에게 있어 직접적인 경제스트레스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스트레스와 재취업의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스트레스와 재취업의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경제 관련 스트레스는 중장년기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여 정신건강을 해칠수 있으며(박효미・이혜순, 2013), 극단적으로 자살위험까지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mpstead & Philips, 2015). 또한 경제스트레스는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고통까지 가중시킨다(장인협・최성재, 2002)는 점에서 중장년기의 경제스트레스는 재취업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요인으로 작용되며(계선자・박혜성, 2008),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은 경제스트레스를 수반하여 노화불안을 가중시킨다(이성은 2012)는 점에서 부정성이 높은 노화불안은 경제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부정성이 높은 경제스트레스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취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2.4. 긍정심리

긍정심리는 개인이 처한 도전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거나 무의식에 잠재되어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심리기제이다. Seilgman(1998)는 긍정심리를 약점보다는 강점, 장애나 병리적인 문제보다는 건강과 활력 같은 긍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긍정심리상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성과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심리는 사용하면 할수

록 증가되는 속성이 있어 인적·물적자본과 같은 자본의 개념으로도 설명된다.
Luthans(2002)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 등의 네 가지 개념에서 성취와 성공이라는 개인의 긍정적 인지상태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네 가지의 구성개념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사용될 때 변수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행동이나 동기부여에 효과성이 더 크고 긍정적인 반응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 등 4가지 하위개념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긍정심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와 인지적 자원, 행동의 방향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을 의미한다. Luthans는 자기효능감은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결과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자발적으로 목표에 도전하고 성취를 위해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노력을 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희망(Hope)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찾아내고 그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를 의미한다. 희망은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하며, 대안을 찾으려는 정신적인 에너지이다. 희망적인 사람들은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적 수단을 더 잘 만들어 내고,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복원력(resiliency)은 다양한 사건에서 겪는 좌절, 갈등, 실패, 역경, 슬픔 등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평정심을 회복하는 심리적 역량을 의미한다(Luthans, 2002). 복원력이 높은 사람일 경우 현실은 어떤 식으로든 대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도전의 기회로 파악하고 성공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낙관주의(optimism)는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개인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나 태도, 사고방식을 말한다. 낙관주의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관주의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재난으로 보고 무력감과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심리는 문제상황을 부정적이고 수동적 관점이 아닌 강점과 긍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심리는 중장년층이 조기은

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역할 상실 등으로 위축된 심리・사회적 문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중장년기의 노화불안이나 경제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심리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취업이나 구직관련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는 의미 있는 변수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또한 긍정심리는 사회적요인과 재취업의지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정기수・하정희, 2018; 최영준・박금주; 2019, 이한석, 2019). 이는 높은 사회적요인이 긍정심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높은 긍정심리는 재취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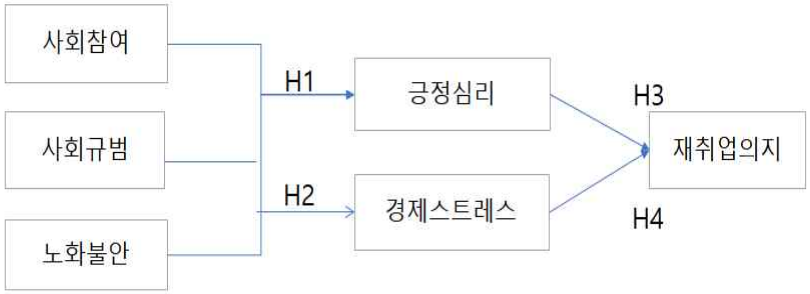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요인을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으로, 심리적요인으로 노화불안, 경제스트레스, 긍정심리를 변수로 도출하였다.

사회적요인(사회참여나 사회규범)은 재취업이나 구직관련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정기수・하정희, 2018; 신연자, 2018; 최영준・박금주, 2019; 이한석・이영균, 2019), 긍정심리는 사회적요인과 재취업의지 간의 매개역할을 하였다(이한석, 2019)는 측면에서 사회적요인의 긍정성은 긍정심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높은 긍정심리는 재취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중장년기의 높은 노화불안은 긍정심리와 경제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예측하였다. 노화불안과 경제스트레스가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으나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에서 노화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김욱, 2011: lynch, 2001), 퇴직이라는 생애주기사건은 한 개인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축소시키고 전반적 생활에 대한 불안가중, 경제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D Holtz-Eakin, 199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화불안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유발되는 경제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경제스트레스 또한 노후준비와 소득확보차원에서 준비하는 재취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변인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고 어떠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재취업의지에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로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관한 경로모형




가설 1-1.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요인이 높아진다.
가설 1-2. 사회규범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요인이 높아진다.
가설 1-3.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요인은 낮아진다.
가설 2-1.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경제스트레스는 낮아진다.
가설 2-2. 사회규범이 높을수록 경제스트레스는 낮아진다.
가설 2-3.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경제스트레스는 높아진다.
가설 3. 긍정심리가 높을수록 재취업의지가 높아진다.
가설 4. 경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재취업의지가 높아진다.

##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중장년층으로 이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40세~64세로 설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 남녀 40세~64세까지의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표본추출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의 특

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균등배분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대면접촉에 어려움이 있어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은 120명(60.0%), 여성은 80명(40.0%)이었으며, 연령은 40대가 80명(40%), 50대는 80명(40.0%). 60대 이상은 40명(20.0%)이었으며, 학력은 중졸 이하가 4명(2.0%), 고졸은 36명(18.0%), 대졸(전문대포함)이 140명(70.0%), 대학원이상은 20명(10.0%)이었다. 부양가족은 없음 11명(5.5%), 1명은 19명(9.5%), 2명은 68명(34%), 3명은 76명(38%), 4명이상은 26명(13%)이었다. 월가구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1명(5.5%), 200~ 400만원 미만이 45명(22.5%), 400~ 600만원 미만이 79명(39.5%), 600~800만원 미만이 35명(17.5%), 800만원 이상이 30명(15.0%)이었다. 자산규모는 1억원 미만이 33명(16.5%), 1~3억원 미만이 46명(23.0%), 3~5억원 미만이 56명(28.0%), 5~7억원 미만이 24명(12.0%), 7억원 이상이 41명(20.5%)이었다.

### 3.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R 3.6.3 버전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연구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재취업의지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성별)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수에 대한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여 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도출한 모형을 통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와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모형을 검증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 3.3. 측정도구

### 3.3.1. 재취업의지

재취업의지는 미래에 재취업하겠다는 의지의 정도로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취업기회를 찾는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재취업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한석(2019)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나는 앞으로 재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다, 나는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재취업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종속변수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취업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3.2.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비공식적 수준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치,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적행위가 발생하는 곳에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진창남・심경수(2017)과 이한석(2019)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나는 이웃과 활발히 교류하는 편이다, 나는 평생학습동아리 등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등 총 10 문항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3.3. 사회규범

사회규범은 사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간 공유된 가치나 규칙, 준법수준, 공공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한다. 사회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창남・심경수(2017), 이한석(2019)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항은 나는 공공법규 등 법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우리지역 공공부분(국가, 자치단체, 학교) 종사자들은 청렴한 편이다 등으로 총 6 문항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3.4.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 외모에 대한 염려, 노인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김욱(2011)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노화불안은 나는 노년에 친구들이 먼저 죽을까봐 두렵다, 나는 노년기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렵다 등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 3.3.5. 경제스트레스

경제스트레스는 소득지출, 자산부채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의한다. 경제스트레스 측정은 박혜성(2007)과 최장원(2018)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항은 가계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 나는 가계의 고정수입이 없어 불안하다, 나는 생활비 부족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불안하다 등 총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3.6. 긍정심리

긍정심리는 Luthans(2007)가 정의한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를 말한다. 긍정심리를 측정하기 위해 배정민(2014)과 이경란(2018)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항은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이 있다,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다, 나는 요즘 내 목표를 이루고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Ⅳ. 분석결과

###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변수에 대한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추출방법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추출모델을 이용하고, 요인의 회전방식은 배리맥스(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방법에 따른 직각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평가기준은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인 요인만 선정하였다. 그리고 요인 적재치(fator loading)가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판단하였다.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여 연구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변수들은 모두 0.8이상으로 높게 조사되어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변수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 | 문항 순서 | 고유값 | 누적분산(%) | Cronbach's α |
|---|---|---|---|---|
| 경제스트레스 | 9. 6. 12. 7. 1. 16. 13. 3. 10. 4. 14. 5. 8. 15. 2. 11 | 10.20 | 14.4 | 0.956 |
| 긍정심리 | 4. 7. 3. 2. 10. 6. 5. 1. 16. 11. 15. 9. 14. 8. 13. 17. 12. 18. 20. 29. | 8.87 | 30.8 | 0.928 |
| 사회참여 | 2. 10. 4. 5. 6. 3. 7. 1. 9. 8 | 5.25 | 39.2 | 0.866 |
| 사회규범 | 6. 3. 5. 4. 1. 2. | 4.07 | 45.8 | 0.840 |
| 재취업의지 | 3. 2. 1. 4. | 3.14 | 50.9 | 0.891 |
| 노화불안 | 3. 5. 6. 1. 2. 4. | 2.84 | 55.5 | 0.803 |

## 4.2. 집단간 재취업의지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집단간 재취업의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성별)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연령, 학령, 부양가족수, 월평균소득, 자산규모)을 <표 2>와 같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산규모에 따라서 재취업의지($F=4.986$, $p<.021$)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 연령, 학력, 부양가족수, 월평균소득 등은 재취업의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유의하지 않지만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 남성(3.53)보다 여성(3.71)이 상대적으로 재취업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재취업률이나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학주・우경숙, 2004: 라진구, 2009; 백주희, 2012). 이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남성보다도 열악하고, 경력단절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될 우려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양수, 2006; 백인화, 2016: 임다희, 2017)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재취업의지는 장래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선행의지의 반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의 경우도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 40대(3.62)와 50대(3.69)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60대(3.4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취업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김학주・우경숙, 2004: 라진구, 2009; 백주희, 2012)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재취업의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차이분석

| 구분 | 학력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p |
|---|---|---|---|---|---|---|
| 성별 | 남자 | 120 | 3.53 | 0.84 | -1.604 | 0.110 |
| | 여자 | 80 | 3.71 | 0.72 | | |
| 연령 | 40대 | 80 | 3.62 | 0.77 | -1.570 | 0.211 |
| | 50대 | 80 | 3.69 | 0.80 | | |
| | 60대 | 40 | 3.41 | 0.13 | | |
| 학력 | 중졸이하 | 4 | 3.56 | 0.314 | 0.029 | 0.993 |
| | 고졸 | 36 | 3.59 | 0.756 | | |
| | 대졸(전문대포함) | 140 | 3.62 | 0.821 | | |
| | 대학원이상 | 20 | 3.57 | 0.854 | | |
| 부양가족수 | 없음 | 11 | 3.47 | 0.71 | 0.393 | 0.814 |
| | 1명 | 19 | 3.76 | 0.69 | | |
| | 2명 | 68 | 3.55 | 0.74 | | |
| | 3명 | 76 | 3.65 | 0.89 | | |
| | 4명이상 | 26 | 3.57 | 0.78 | | |
| 월평균 가구소득 | 200만원미만 | 11 | 3.50 | 0.642 | 1.364 | 0.248 |
| | 200~400만원미만 | 45 | 3.59 | 0.679 | | |
| | 400~600만원미만 | 79 | 3.68 | 0.840 | | |
| | 600~800만원미만 | 35 | 3.74 | 0.746 | | |
| | 800만원이상 | 30 | 3.33 | 0.949 | | |
| 자산규모 | 1억원미만 | 33 | 3.43 | 0.831 | 2.950* | 0.021 |
| | 1~3억원미만 | 46 | 3.81 | 0.768 | | |
| | 3~5억원미만 | 56 | 3.71 | 0.783 | | |
| | 5~7억원미만 | 24 | 3.71 | 0.715 | | |
| | 7억원이상 | 41 | 3.31 | 0.813 | | |

셋째, 학력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값이 대졸(3.62), 고졸(3.59), 대학원이상(3.57), 중졸이하(3.5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력에 대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장년층은 대졸보다 고졸에서 취업의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중장년층의 학력수준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고 고용의 질이 낮아져 재취업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령사회에서 일의 의미를 부여하며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김상미, 2013; 김학주・우경숙, 2004; 조귀분, 2016).

넷째, 부양가족수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재취업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월평균 가구소득은 재취업의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는 재취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재취업의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값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구간인 800만원 이상(3.33)과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200만원 미만(3.50)의 집단에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비교분석보다는 소득과 재취업의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세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자산규모에 따라 재취업의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또한 자산규모의 평균값은 1~3억원미만(3.81), 3~5억원미만(3.71)과 5~7억원미만(3.71)이 같고, 이어서 1억원미만(3.43), 7억원이상(3.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낮을수록 재취업의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월평균 가구소득이나 자산규모에서는 경제적인 요인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재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기초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3.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계수는 <표 3>와 같다.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재취업의지(3.61)이고, 그 다음은 긍정심리(3.55), 노화불안(3.18), 사회규범(3.12), 사회참여(2.93), 경제스트레스(2.60)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취업의지 연구변수에 대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선형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은 노화불안(r=0.226**), 경제스트레스(r=0.214**), 사회규범(r=0.153*)이고, 사회참여와 긍정심리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긍정심리 변수는 사회참여(r=0.490**), 사회규범(0.354**), 노화불안(-0.218**)과 상관성이 높았다. 경제스트레스는 노화불안(0.446**), 긍정심리(-0.159*)와 유의한 선형관계를 갖지만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변수들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의미를 해석해보면,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이 구직 등을 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긍정심리의 평균값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변수로 5점 만점에 3.55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재취업의지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지만 중장년층의 긍정심리를 상당히 높게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스트레스의 평균값이 5

점 만점에 2.6점으로 조사되어 다른 변수들에 비해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특성에 의하면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이 72%로 조사되었는 바, 2020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61.4만원임 점을 고려하면 소득수준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 항목 | 평균±표준편차 | | 사회 참여 | 사회 규범 | 노화 불안 | 긍정 심리 | 경제 스트레스 | 재취업 의지 |
|---|---|---|---|---|---|---|---|---|
| 사회참여 | 2.93±0.715 | 상관계수 | - | | | | | |
| | | 유의확률 | - | | | | | |
| 사회규범 | 3.12±0.710 | 상관계수 | 0.310** | - | | | | |
| | | 유의확률 | < .001 | - | | | | |
| 노화불안 | 3.18±0.690 | 상관계수 | 0.076 | 0.028 | - | | | |
| | | 유의확률 | 0.282 | 0.689 | - | | | |
| 긍정심리 | 3.55±0.499 | 상관계수 | 0.490** | 0.354** | -0.218** | - | | |
| | | 유의확률 | < .001 | < .001 | 0.002 | - | | |
| 경제 스트레스 | 2.60±0.840 | 상관계수 | 0.077 | 0.046 | 0.446** | -0.159* | - | |
| | | 유의확률 | 0.277 | 0.521 | < .00 | 0.024 | - | |
| 재취업 의지 | 3.61±0.802 | 상관계수 | 0.085 | 0.153* | 0.226** | 0.106 | 0.214** | - |
| | | 유의확률 | 0.229 | 0.031 | 0.001 | 0.134 | 0.002 | - |

* $\alpha$=0.05에서 유의함, ** : $\alpha$ = 0.01에서 유의함

## 4.4. 연구가설의 검증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4>과 같고, 추정된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경로계수가 가장 큰 것은 노화불안→경제스트레스(0.539**), 그 다음은 사회참여→긍정심리(0.322**),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긍정심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총 8개의 경로 중에서 사회참여→경제스트레스, 사회규범→경제스트레스 경로를 제외한 6개의 경로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하는 모형적합지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chi^2$ =11.512로 p-value가 0.21이고, GFI(0.967), AGFI(0.826), NFI(0.927), RMSEA(0.097), TLI(0.842), NFI(0.927), CFI(0.948), IFI(0.951)로 0.9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 모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설검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장년층의 사회참여는 긍정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긍정심리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또한 중장년층의 사회규범은 긍정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사회규범이 높을수록 긍정심리가 높아진다는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중장년층의 노화불안은 긍정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긍정심리는 낮아진다는 가설 1-3도 채택되었다. 따라서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은 긍정심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인 반면 노화불안은 긍정심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구가설의 검증

| 연구가설 | 경로계수 | 표준오차 | z값 | p-value | 채택/기각 |
|---|---|---|---|---|---|
| 사회참여→긍정심리 | 0.323 | 0.044 | 7.339** | 0.000 | 채택 |
| 사회규범→긍정심리 | 0.166 | 0.044 | 3.749** | 0.000 | 채택 |
| 노화불안→긍정심리 | -0.197 | 0.044 | -4.525** | 0.000 | 채택 |
| 사회참여→경제스트레스 | 0.043 | 0.078 | 0.551 | 0.582 | 기각 |
| 사회규범→경제스트레스 | 0.026 | 0.078 | 0.326 | 0.744 | 기각 |
| 노화불안→경제스트레스 | 0.539 | 0.077 | 6.982** | 0.000 | 채택 |
| 긍정심리→재취업의지 | 0.220 | 0.104 | 2.106* | 0.035 | 채택 |
| 경제스트레스→재취업의지 | 0.227 | 0.065 | 3.465** | 0.001 | 채택 |

* : $\alpha$=0.05에서 유의함, ** : $\alpha$ = 0.01에서 유의함

둘째,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은 경제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반면 노화불안은 경제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경제스트레스도 높아진다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을 많이 보유할수록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표본특성이 경제스트레스(2.60)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사회규범(3.12)과 사회참여(2.93)가 중간 값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 사회규범과 경제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는 추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달리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중장년층의 긍정심리는 재취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심리가 높을수록 재취업의지가 높아진다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긍정심리는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을 강화시키는 변인으로 긍정심리를 많이 보유할수록 재취업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요인을 작용함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스트레스는 재취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재취업의지가 높아진다는 가설 4도 채택되었다. 경제스트레스는 경제

적 어려움으로 겪는 스트레스에 해당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 Ⅴ. 논 의

##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퇴직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고용불안과 퇴직 후의 소득대체를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사회규범, 노화불안, 경제스트레스, 긍정심리요인이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변수 중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재취업의지(3.61)로 나타났고, 이어서 긍정심리(3.55), 노화불안(3.18), 사회규범(3,121), 사회참여(2,93), 경제스트레스(2.60)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층은 재취업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중장년층은 재취업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해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집단간 차이분석을 하였는데, 자산규모를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학력, 부양가족수, 월평균소득 등은 재취업의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상대적인 평균값을 통해 비교해 볼 때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는 기본적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의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집단내에서 성별이나 연령, 학력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들을 기초로 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지원 정책은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이 높을수록 긍정심리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장년층의 사회참여는 개인에게 활력과 건강을 제공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정서적 지지를 한다(김수린 외 2, 2018; 장유미, 2011)는 측면에서 중장년층의 긍정심리를 높이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 간 공유된 가치나 규칙, 공공성에 대한 인식, 준법수준 등에 대한 인식과 청렴,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높은 규범의식과 인식은 신뢰로 이어져 긍정심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이한석, 2019)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며,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참여 시설 등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취업 관련 법률이나 제도, 각종 프로그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취업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년층의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긍정심리는 낮아지며, 경제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노화불안이 어떠한 변인과 함께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심리적 수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본 연구의 경로 중에 노화불안이 경제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계수(6.98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장년기의 노화불안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화불안과 경제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삶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긍정심리를 강화하고 부정정서를 낮출 수 있는 심리적 지원프로그램 등 전략적 개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장년층의 긍정심리가 높을수록 재취업의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긍정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상황을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강점에 두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재취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심리요인이 다른 자원과 결합되었을 때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중장년층의 경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재취업의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의 주된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된다. 중장년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의 하락은 경제적 빈곤을 야기하게 되며 경제적 빈곤은 경제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 재취업의지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와 사회규범은 경제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참여는 우울이나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으나(김수린외 2, 2018; 윤혜진, 2018)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이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표본특성이 경제스트레스(2.60)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사회규범(3.12)과 사회참여(2.93)가 중간값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스트레스가 1차적으로 부족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2차적인 스트레스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규범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변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와 사회규범과 경제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

는 추후 표본의 특성을 달리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 5.2. 시사점 및 제언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심리적,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규범을 강화하고 인식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규범은 신뢰와 청렴,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사회규범은 그 사회의 가치체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신뢰로 형성된 사회규범은 장래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여 재취업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취업 관련 법률이나 제도, 지원프로그램 등을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사회규범은 사회의 불공정이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 재취업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둘째,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사회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참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사회참여 관계망을 통해 재취업관련 정보를 얻거나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사회참여 시스템은 부족한 편이며, 중장년층의 요구 수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인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층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지원되었으나, 현재의 중장년층은 노년층으로 편입되기에는 아직 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수준에 맞는 사회참여 시설이나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장년층의 욕구에 맞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참여로 형성된 사회관계망은 노화불안이나 스트레스 등 부정정서를 낮추는 요인이 되며, 또한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적 교류를 이끌어내 사회의 효율성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중장년층은 과거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경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이에 맞는 중장년층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심리적 차원의 시사점으로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심리기제를 이해하고 돕는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화불안과 경제스트레스는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심리기제로 두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할 경우 심각한 삶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심리변인이다. 반면 긍정심리는 이 두 변인간의 중재역할이 가능하고 훈련이나 심리적 개입을 통해 긍정심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일자리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장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원과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개인과 집단의 성과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장년기의 생활사건이나 경제적 사건 등 외적 요인은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긍정심리는 단기간에 교육이나 훈련, 상담 등의 개입을 통해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장년층의 재취업 정책이나 지원서비스를 중장년층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중장년층은 재취업의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중장년층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성취와 보람,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의미에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중장년층 재취업 일자리는 단순 일용직, 저임금 등 중장년층의 인적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다양한 욕구나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재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업훈련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는  재취업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은 일자리는 연령제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청년층과의 일자리 갈등 등으로 재취업 일자리는 제한요건이 청년층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고령사회에서 생산가능연령인구의 감소로 부족한 노동인력의 대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늘어난 수명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과 청년층과의 일자리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인식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재취업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해와 공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5.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 영향요인을 사회적 요인과 중장년기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변인들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초기단계에 해당되어 변수선정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며,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재취업의지에 가장 밀접한 영향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가구의 경제적 요인들로, 이러한 기초통계에 대한 분석을 세밀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관련 실증분석이 진행된다면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기초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의 현실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정책이나 제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정책이나 재취업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강경란(2018), “베이비붐세대의 창・재취업의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경란・박철우(2017),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5), 177-189.

강욱모(2011), “적극적 고령화정책 실현을 위한 노인교육의 발전방향”,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 26-33.

강해자(2012),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7, 191-220.

계선자・박혜성(2008),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2), 57-72.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6판), 서울:학지사.

김미희・ 탁진국・한태영・한영석・유태용(2007), “중장년층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2(4), 537-557.

김상미(2013),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구직자의 취업결정요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서호・변상해 (2016),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이 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레스,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6), 71-81.

김수린・김주현・정순돌(2018), “고령층의 주관적 건강상태, 고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73(2), 9-47.

김양수(2007), “고령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김욱(2011), “대학생의 노화불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27-56.

김욱・김재희(2007), “노인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4), 233-260.

김정선・강숙(2012),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돌봄 부담감, 노화불안, 노후준비 및 삶의 질”, 「한국보건간호학회」, 26(3), 440-452.

김정훈・유경원・이다겸(2017),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 「경기연구원」,

11, 1-135.
김종향(2011),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고령자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8(2), 47-70.
김학주, 우경숙(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97-110.
김형빈・이진석(2011),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특성변화와 사회자본의 형성”, 「지방정부연구」, 14(4), 129-148.
김태호(2015).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석인・김준표・이다지・신지민(2015),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한국노인복지학회」, 70, 169-195.
라진구(2009), “고령자 재취업 및 직종선택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기상(2009), “한국의 고령인력 재취업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하(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사회복지연구」, 가을, 291-327.
박한준・김보기(2015), “중장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2).
박혜성(2007), “노인가계의 경제적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효미・이혜순(2013), “한국 중년성인의 자살생각 영향 요인”, 「스트레스 연구」, 21(4), 323-329.
박창제(2013), “베이비부머와 전 베이비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3(2), 89-98.
배정민(2014), “긍정심리자본, 생활만족도와 노후준비도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인화(2016), “경력단절 여성베이비부머의 구직결정 요인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주희(2012). “한국 중・노년기 은퇴 경험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2(1), 273-287.
서찬란(2018),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의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부

담 및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조절 효과”, 「한국생활과학학회」, 27(5), 349-367.

신연자(2018), “재취업 구직자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와 구직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혜진(2016), “대구광역시 준고령자 재취업결정요인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엄미아(2012), “사회적 자본이 고령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염인숙(2019), “중고령자의 개인적 특성과 노후준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30(4), 175-195.

왕석순, 서병숙(1995), “중년기 적응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노년학」, 15(1), 17-31.

윤혜진(2018),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사회복지연구」, 40(3). 115-145.

이경란(2018), “고령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학습몰입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호(2013), “중·고령실업자의 재취업욕구가 진로경로개척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은(2012), “만성질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234-262.

이성진(2016), “퇴직 후 재취업과 사회참여 활동의지에 관한 질적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7(6), 931-946.

이수림・조성호(2007),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 13(3), 65-87.

이승배(20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의 사회자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승원・김동배・이주연(2008),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1), 107-125.

이영균・최승인(2016), “노인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확회보」, 20(2), 151-180.

이재성・안준기(2016),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6(1), 147-173.

이한석(2019), “신중년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이 은퇴후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한석・이영균(2019), “신중년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33-40.

임다희(2017),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정책의 효과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우석(2009), “사회적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을터(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via Social Network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글로벌경영학회」, 13(4), 1-22.

임한규・이우진(2018), “사회적자본이 창직동기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2(1), 32-17.

송희영(2016), “비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베이비붐세대 중년남성의 학습경험 연구: 금융권 종사 경험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유미(2011), “노인일자리 사업참여가 사회적자본 변화에 미치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261-289.

장인협・최성재(2002), 노인복지학,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정진곤(2001), “일의 의미와 교육”, 「열린교육연구」, 9(2), 221-237.

장진희(2012),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기수・하정희(2018),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청소학연구」, 25(11), 437-455.

조귀분(2016), “중장년 구직자의 진로자본이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창남・신경수(2017),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와 사회적관계 연구”, 「인문사회」, 21, 8(3).

최영준・박금주(2019), “20대 청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40-46.

최장원(2018).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8(1), 117-131.

최해경(2016), 노인복지론, 서울:학지사.

통계청 통계자료(2019, 2020).

전경련 중소기업협련센터 보도자료(2019, 2020).

벼룩시장(2018.8.11.)

OECD 2017 경제보고서.

(2) 국외문헌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Richardson J.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Press.

Coleman, Jame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D Holtz-Eakin and T.M(1994), "Smeeding, Imcome, wealth, and intergenerational economic relations of the aged", Demography of aging, pp. 102-145.

Hempstead, K. A & Philips, J. A(2015), "Rising Suicide among adultsaged 40-64year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8(5), 491-500.

Lasher, K. P & Faulkender, P. J(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Levinson, D. J & Levinson, Judy D(1997), The seasons of wo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Books.

Luthans, F. & Jensen, S. M(2002), "Hope: A new Positive Strength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1304-1322.

Lynch, S. M(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Keynote address at symposium on the contribution of human and social capital to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well being, Quebec City.

Seilgman, M. E. P(1998),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2nd ed.)", New York, NY: Pocket Books

<Abstract>

# Path Analysis on the Reemployment will of Middle-aged People: Focusing on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Middle-aged people in our society will retire from their main jobs around their 50s, but it is not easy for middle-aged people to re-employment high-quality jobs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corporate wage burden, and age restrictions. In response, factors affecting the will of the middle-aged to re-employment were set as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nd 200 middle-aged people aged 40 to 64 across the country were analyzed to identify causal relationships and derive implic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six out of a total of eight paths, excluding two, were significant at the statistical level. The largest coefficient of seniority was aging anxiety → economic stress (0.539**), followed by social participation → positive psychology (0.323**), economic stress → reemployment willingness (0.227**), positive psychology → reemployment willingness (0.220**), aging anxiety → positive psychology (-0.197**), and social norm → positive psychology (0.166**). In addition,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norms served as factors that boosted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sychology served as a buffer between aging anxiety and reemployment willingness, and positive psychology and economic stress were found to increase reemployment willingness. In particular, aging anxiety and economic stress are variables that inherent negativity, which have been shown to increase the willingness to re-employment by strengthening negativity when the two variables work in combin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ntegrated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factors affecting the will to re-employment of middle-aged people and reveal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reemployment policies for middle-aged people need to establish various job policies that reflec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wants, and that companies, employers, and job institutions need to provide various education, training and programs to help middle-aged people understand psychologically.

Key words: Middle-aged people, Re-employment will, Social participation, Social norms, Positive psychology, Anxiety over aging, Economic stress